
중추구입시

주의할 점과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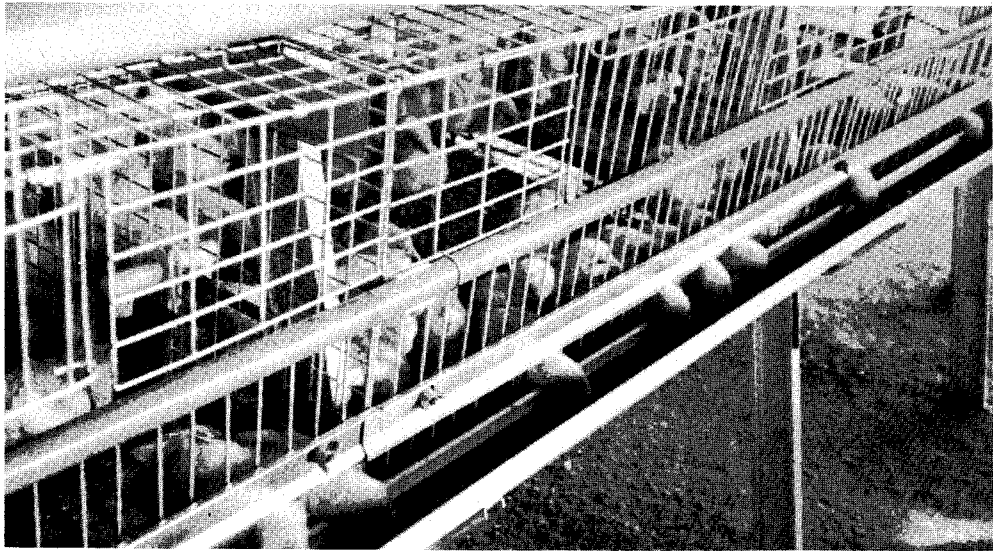
산란계군 성적은 18~20주령까지의 육성기에
서 결정된다. 육성기 질병 위생관리의 필요
성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종계로부터 실용계에
이행 감염하는 질병은 10~20년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추백리, CRD는 북미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육종회사가 질병을 박멸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완전한 박멸까지는 도달되지 않았지만 감소현상
이 확실한 질병으로는 임파성백혈병(LL)이 있다.
이 병은 엄청난 폐사를 수반하지 않으나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몇가지 보고에 의하면 LL에 감염된 계군은 산란
기 폐사율이 5% 이상 높고, 산란율은 5~7%가
낮다고 한다. 1982년에 끝난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
쓰인 닭은 1981년에 부화한 것으로서 감염계군에서
는 12~22%의 발병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4.5%의
낮은 발병율을 나타낸 계군도 있었다.

근년에 육종회사에서는 LL의 퇴치를 위해 집중
적인 노력을 해왔다. 따라서 최근 LL의 발증율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중요한 요인

중추농장에서 전염병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가 또한 중추는 어느 정도 면역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성적을 추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MD 백신브레이크 연구에 의하면 백신접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MD 바이러스에 고도로 노출된 계군은 MD에 당하고 말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면역보다 야외바이러스가 빨리 증식되는 것이 아닐까?

병아리 때에 MD 바이러스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령이 다른 많은 계군이 한 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고, 병아리도 바로 옆에서 육추되고 있는 농장에서는 노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 계군의 관찰, 점검을 소홀히 하면 보다 많은 위험성을 조장시킨다.

성계사로부터 육추, 육성사로 관리자가 위생상 주의도 없이 출입하는 것도 문제이다. 비슷한 위험성은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같다고 본다. 대부분 모계면역은 어린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병아리 자체의 면역이 적절한 백신접종에 의해서 산생되기까지의 이행면역인 것이다.

◎프로그램의 설계

육성추에 대한 백신접종 프로그램은 육성농장에 있는 질병상황과 관계되고 채란농장의 환경하에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특별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가도 관계가 있다.

예를들면 채란농장 주변지역에 ILT의 오염이 있다면 육성기에 백신접종을 해야한다. 또 육성기에 계두백신을 하지 않으면 산란계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다.

자가육성 양계농장은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 농장에 적응되는 백신프로그램을 세워야 한다.

◎체중, 발육

육성추에 대한 급이방법은 여러가지 시험이 실시되었다. 여러가지 급이방법을 써왔지만 병아리가 20주령에 도달하면 비슷하게 발육하고, 산란기도 비슷한 성적을 나타낸다.

육종회사는 판매계종의 경영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과 실험결과는 다른 면이 있다. 즉 이것은 육종회사에서의 실험단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환경요인이 야외에서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육종대사는 실험결과 보다는 높은 수준의 양분 농도를 권장한다. 특히 어린병아리는 고단백사료를 권장하고 있다. 최근 몇몇 육종회사가 중요시하고 있는 요인으로서 실험단계에서 중요시하지 않았던 골격발육이 있다. 즉 육성추는 과도한 지방을 없애고 골격발육이 약하지 않은 적성에 맞는 체중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골장의 측정치가 골격발육의 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가늠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육성기에 사료를 조금만 더 써서 계란 1개가 더 생산된다면 비용을 더 쓴 가치가 나타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와는 반대로 열심히 제한급이를 해서 사료를 300~400g 절약한 때문에 성성숙이 3일 정도 늦어져 다른 부분의 성적은 같다 하더라도 사료를 절약한 양보다도 산란의 손실이 더 클지도 모르는 일이다.

◎케이지육성과 평사육성

케이지와 평사육성은 각기 특징을 갖고 있으나 실험연구 결과로서는 육성시스템에 따른 성적의 차이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즉 비슷한 성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단 육성추의 외관상 차이는 있다. 18~20주령에 산란케이지로 이동한 평사육

성 중추계군에서는 몸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다. 케이지 육성에서는 육성기 마지막 10~20일간은 바닥면적과 급이공간이 상당히 좁아지는 예가 있다. 이때는 초산을 앞두고 산란기관이 빨리 발육하는데서 오는 체중신장기이기도 하다.

최근 실험에 의하면 평사와 케이지에서 육성한 중추의 성적은 비슷했으나 평사육성 중추는 케이지육성에 비하여 체중이 0.1파운드, 난중은 0.5g 정도 무거웠다고 제시되고 있다.

◎성성숙

최근에 와서 육종회사들은 성성숙 일령을 빨리 하는 육종을 진행시키고 있다. 지금은 18~19주령에서 무리없이 산란에 들어가고 난중에도 영향을 주지않은 계군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추의 체중은 산란피크에 있어서의 중추 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좀 이르게 그 계종이 권장하는 체중으로 발육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성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광선이다. 점등시간이 일정한가, 감소하고 있는가 또는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산란개시 일령에 관계된다.

전술한 실험결과에서는 2가지 다른 점등방법을 썼으나 초산일령에서는 1일의 차가 있었을 뿐이다. 야외의 농장에서는 성능지표에 표시된 적절

표1. 계사도입시기와 산란성적과의 관계

	도입시기 (20주령)					
	1월	3월	5월	7월	9월	11개월
80주령계군						
소란계종	56.2%	55.6%	56.2%	57.2%	57.7%	57.8%
평균적란중계종	68.5%	67.6%	67.2%	68.7%	69.4%	69.8%
대란계종	76.5%	75.5%	74.9%	75.9%	76.5%	77.1%
65+40계군						
소란계종	62.5%	61.7%	62.3%	63.7%	64.7%	64.4%
평균적란중계종	73.5%	72.6%	73.8%	73.8%	74.6%	74.7%
대란계종	80.2%	79.4%	78.9%	79.8%	80.4%	80.8%

표2. 계사도입시기와 평균적란가격계

	도입시기 (20주령)					
	1월	3월	5월	7월	9월	11개월
80주령계군						
소란계종	45.0	44.0	43.4	44.0	45.0	45.5
평균적란중계종	46.2	45.5	44.9	45.3	46.2	46.8
대란계종	47.0	46.4	45.9	46.1	46.9	47.4
65+40계군						
소란계종	44.7	44.2	44.5	45.8	46.2	46.2
평균적란중계종	45.8	45.6	45.8	46.9	47.2	47.2
대란계종	46.5	46.3	46.7	47.6	47.6	47.7

한 일령으로 산란에 들어가도록 점동방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군의 대부분이 산란하게 되고 적절한 주령에 산란피크에 도달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계종의 관리지침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중추의 도입시기

1수당 평균 수익성은 계사도입기일을 변동시키는 것 만으로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난가의 시장 실패는 평균난가에서 20%가 상승 하락된다. 산란율, 난중은 매일 변동하고 있다. 그래서 최고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시기에 중추를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난가때는 산란수량을 줄이고, 고난가때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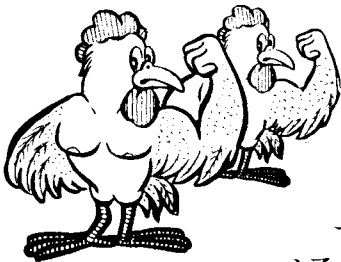
수익에 영향을 주는 도입시기의 결정은 경영 목표에 관계를 준다. 도날드벨 교수는 생산비와 수익

표3. 계사도입시기와 수익성과의 관계

	도입시기 (20주령)					
	1월	3월	5월	7월	9월	11기월
80주령계군	(\$/ 헥타르)					
소란계종	2.77	2.55	2.43	2.58	2.81	2.91
평균적란계종	3.08	2.91	2.78	2.89	3.11	3.21
대란계종	3.25	3.11	3.02	3.09	3.25	3.37
65+40계군	(\$/ 헥타르)					
소란계종	3.26	3.18	3.28	3.63	3.69	3.65
평균적란계종	3.60	3.59	3.68	3.96	3.98	3.97
대란계종	3.79	3.81	3.94	4.17	4.12	4.12

(계란+도태계수입)-(사료+낮은 코스트)

성을 여러가지 조건하에서 계산하였다. 표를 보면 3월부터 7월사이에는 80주령 이상의 노계는 사육하지 않는다. 1월부터 5월까지 105주령 이상의 계군은 사육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계의 연구 91년 4월호)



노계유통 전문업체

유림유통은 각 식품회사 지정업체로서 수시로 도태하는 각종 노계를 수량불문 구입하겠으니 연락주시면 최고의 시세와 신용으로 신속한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귀 농장의 무궁한 번영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계유통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유림유통

이 두 수 드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55-3 두손B/D(2F)

TEL: (02) 578-1130, 1131

FAX: (02) 578-5449